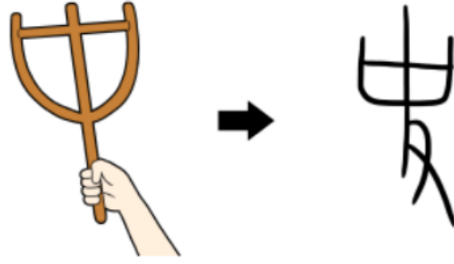


회의문자 ①



使자는 '시키다'나 '부리다', '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갑골문이 등장했던 시기 使(부릴 사)자와 史(역사 사)자, 事(일 사)자, 吏(관리 리)자는 모두 하나의 글자였다. 使자는 본래 정부 관료인 '사관'을 뜻했었다. 사관은 제사를 주관하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손에는 제를 지내고 점을 치는 주술 도구를 쥐고 있었다. 갑골문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그린 것이었다. 후에 글자가 분화되면서 人자가 들어간 使자는 '일을 시키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허신(許慎)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정의하기로 史자는 '일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吏자는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事자는 '직책'으로 분화되었다고 한다. 아래의 그림을 보며 使, 史, 事, 吏자의 옛 글자가 어떻게 분화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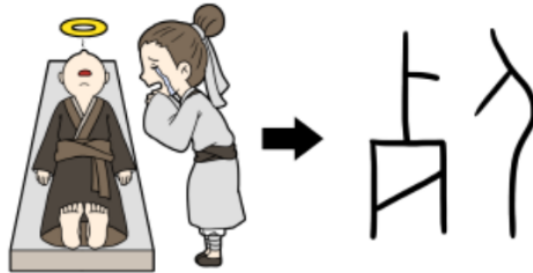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死자는 '죽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死자는 歺(뼈 알)자와 匕(비수 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匕자는 손을 모으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死자를 보면 人(사람 인)자와 歺자가 𣦵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시신 앞에서 애도하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다. 해서에서부터 人자가 匕자로 바뀌기는 했지만 死자는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모습에서 '죽음'을 표현한 글자이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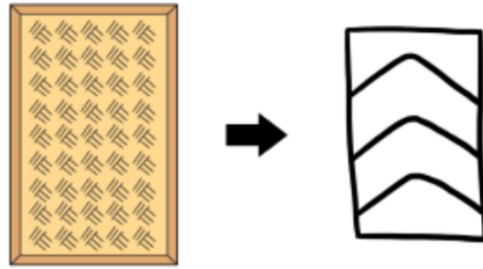
使

하여금/
부릴
사

死

죽을 사

상형문자 ①



席

자리 석

席자는 '자리'나 '돛자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席자는 广(집 엄)자와 廿(스물 입)자, 巾(수건 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갑골문에 나온 席자는 단순히 돛자리 하나만이 𠂔 그려져 있었다. 고문(古文)에서는 여기에 厂(기슭 엄)자가 𠂔 더해져 있었는데, 그늘진 곳에 자리를 깔고 앉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厂자가 广(집 엄)자로 바뀌었고 돛자리는 廿자와 巾자로 표현되면서 지금의 席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지금의 席자는 고문에 나타나 형식이 변화된 것으로 '자리'나 '깔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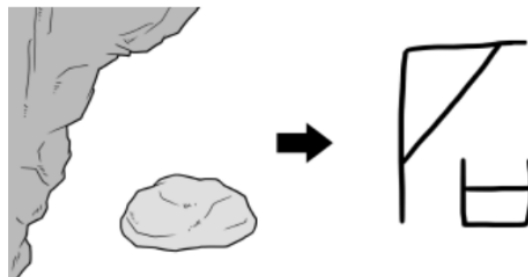


소전



해서

상형문자 ①



石

돌 석

石자는 '돌'이나 '용량 단위'로 쓰이는 글자이다. 石자의 갑골문을 보면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돌덩이가 그려져 있었다. 금문에서는 벼랑 아래로 돌이 굴러떨어진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의 石자이다. 그래서 石자의 좌측 부분은 벼랑이나 산기슭을 뜻하는 厂(산기슭 엄)자가 변한 것이고 그 아래로는 떨어져 있는 돌덩어리가 그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옛날에는 돌이 무게의 단위나 악기의 재료로 쓰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石자에는 '용량 단위'나 '돌 악기'라는 뜻이 남아있다. 그러나 石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주로 '돌의 종류'나 '돌의 상태', '돌의 성질'과 관련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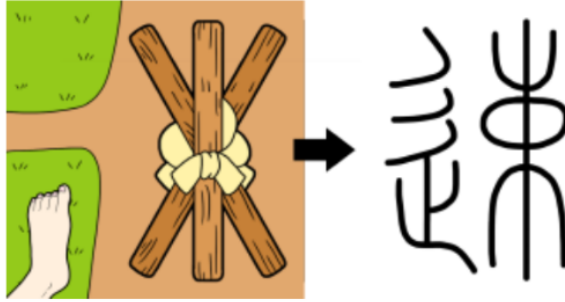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速

빠를 속

速자는 '빠르다'나 '빨리 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速자는 辵(쉬엄쉬엄 갈 착)자와 束(묶을 속)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束자는 나뭇단을 묶어 놓은 모습을 그린 것으로 '묶다'라는 뜻이 있다. 갈 길을 재촉할 때는 채비를 단단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速자는 나뭇단을 단단히 묶어 놓은 모습을 그린 束자를 응용해 발목의 고름을 단단히 조였음을 표현하고 있다. 速자는 '빠르다'라는 뜻이 있지만, 이외에도 '도래하다'나 '자주'와 같은 뜻으로도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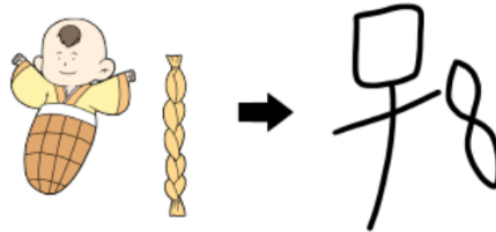
速

소전

速

해서

회의문자 ①



孫

손자 손

孫자는 '손자'나 '후손'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孫자는 子(아들 자)자와 系(이을 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系자는 명주실을 손으로 엮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이어지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이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系자에 子자가 결합한 孫자는 '아들이 이어지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본래 갑골문에서는 子자와 系(실 사)자만이 있었으나 소전에서는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系자로 바뀌었다..

孫

갑골문

孫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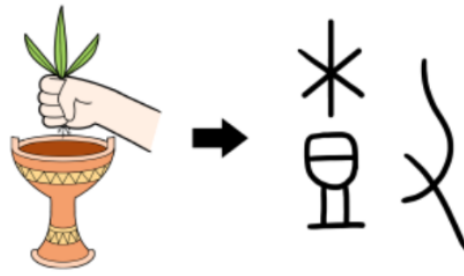
孫

소전

孫

해서

형성문자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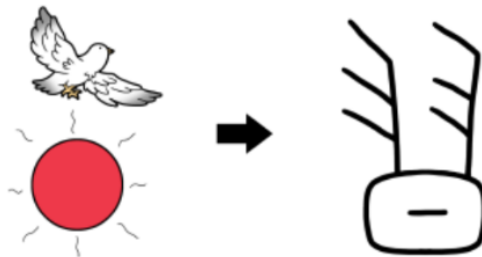
樹

나무 수

樹자는 '나무'나 '심다', '세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樹자는 木(나무 목)자와 𣏟(세울 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𣏟자는 그릇 위에 묘목을 심는 ^木모습을 그린 것으로 '세우다'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𣏟자는 樹자 이전에 쓰였던 글자였다. 갑골문에 나온 樹자를 보면 木(나무 목)자가 없는 𣏟자가 그려져 있었다. 𣏟자는 손으로 묘목을 심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지만 소전에서는 여기에 木자가 더해지면서 이것이 나무와 관계된 글자임을 뜻하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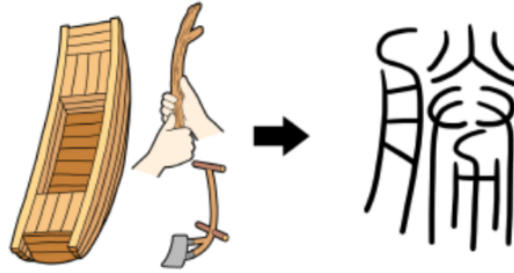
習

익힐 습

習자는 '익히다'나 '배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習자는 羽(깃 우)자와 白(흰 백)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習자의 갑골문을 보면 白자가 아닌 日(해 일)자에 羽자가 ^習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새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새의 날개깃이 태양 위에 있으니 習자는 매우 높이 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새가 하늘을 나는 법을 익히기까지는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었을 것이다. 그래서 習자는 수없이 배우고 익혔다는 의미에서 '익히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勝

이길 승

勝자는 '이기다'나 '뛰어나다', '훌륭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勝자는 朕(나 짐)자와 力(힘력)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朕자는 노를 저어 배를 움직이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천자가 자신을 지칭하는 '나'라는 뜻이 있다. 그러니까 朕자는 천자가 자신을 뱃사공에 비유하여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뜻이다. 여기에 力자가 더해진 勝자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천자가 힘을 발휘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즉 勝자는 싸움에서 이기거나 나라를 훌륭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이기다'나 '뛰어나다', '훌륭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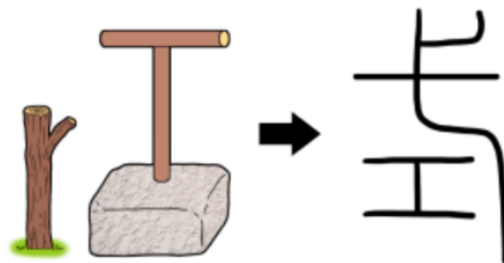
勝

소전

勝

해서

형성문자 ①



式

법 식

式자는 '법'이나 '의식', '제도', '형상'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式자는 弋(주살 익)자와 工(장인 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弋자는 동물을 잡기 위해 만든 말뚝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익→식'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式자에 쓰인 工자는 물건을 만드는 '장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장인들은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물건을 만든다. 그래서 式자는 장인의 규칙이라는 의미에서 '법식'이나 '제도', '의식'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式

소전

式

해서